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정 양  
우석대 문예창작과 명예교수·시인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

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뒤(밑)가 마려워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까지 참아야 하는 것이 보릿고개를 넘기는 사람들의 상식이었다.

잡다보면 번비가 심해지고 그러다가 밑이 짜질 수밖에 없었다. 1930년대 강경애의 소설 '적빈'에도 배변을 참느라고 강충거리며 걷는 주인공의 안간힘이 리얼하다.

우리 문학에서 흥부는 가난의 상징이다. 마음 착한 것 말고는 가난하게 살 이유가 없는 흥부였다.

흥부 내외가 마을의 온갖 굶은이를 도맡아 해도 한 달에 아홉 끼니 먹기가 어려웠던 건 늘부로 상징되는 천민자본주의의 착취구조 탓이었기에 흥부가를 즐기던 청중들은 흥부의 가난을 남의 일로만 여기지는 않았다.

흥부가에는 흥부네 집의 쥐들이 먹거리를 찾아 집안을 뒤지고 다니다가 마침내는 다리에 가래뿔이 서고, 가래뿔 선 쥐들이 찾아와서 흥부네 집안에서 잠을 살핀다는 대목이 있다.

요즘의 흥부가 청중들은 그 대목을 들으면서 가볍게 웃고 말겠지만 옛날의 흥

부가 청중들은 가래뿔 선 쥐들의 끄끙 앓는 소리를 우스개로 즐기면서도 먹거리를 찾다 지친 자신들의 잠답함을 쓰러리게 되세졌을 것이다.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 한다는 말이 있다. 가난의 원인을 당사자들의 개인적인 미련함, 게으름, 낭비병 등등에 근거를 두고자 할 때 흔히 쓰는 말이다.

그것은 가난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포기해버리는, 원망할 데면 하늘한테나 하라라는, 가난을 숙명으로 여기고 살아가라는 참으로 음험한 말이다.

부정부패나 봉건시대의 고질적인 착취구조 같은 것들을 희석시키려는 그 음험한 말은 지금도 이 나라에서 흥부시대처럼 독특한 제 구실을 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제일 높고 자살의 상당부분이 가난과 상대적 박탈감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밑이 짜지던 우리의 절망적인 가난은 과연 옛날 얘기에 불과한가?

밀린 집세와 공과금이 담긴 돈 봉투를 유서와 함께 두고 자살한 송과 세 모녀의 눈물겨운 절망이 얼마 전에도 있었다. 가난 때문에 집단 자살하는 일이 요즘 이 나

라에 어디 한두 번이던가.

대선 공약이던 증세 없는 복지 대신 복지 없는 증세를 하면서도 정부는 증세가 아닌 적하느라 온갖 꼼수를 다 부린다.

담배세를 그렇게 허망하게 올려버리고도 무엇을 또 얼마나 더 올릴 작정인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도 우긴다. 증세 논란은 담배값 올리기 전에 했어야 마땅하다.

이런저런 증세 논란의 중심에 현행 법인세율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증세는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는 대통령의 최근 입장은 백 번 천 번 울다.

그것이 함부로 증세를 해버린 뒤끝이 아니라면, 그리고 법인세율을 끝끝내 동결하려는 안간힘이 아니라면 말이다.

공산주의가 야만의 끝에 이른 게 북한이고, 자본주의가 야만의 끝에 이른 게 한국이라는 말이 꼭 악의적인 양비론만은 아니지 싶다.

우리의 가난이 벼랑 끝처럼 아슬아슬한데, 요즘 증세 논란의 꼼수도 그 안간힘도 아슬아슬하기는 마찬가지다.

의료칼럼

돌연사에서 탈출하기



장 경 식  
조선대병원 순화기내과 교수

진 가서 할머니를 보니 “얼마나 아파 죽는대요?”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잠자듯이 조용하게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한다. 죽는 순간에는 얼마나 통증이 있는 지는 잘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가면 좋겠다고 한다.

조상님들 중에 그렇게 가는 것이 가장 좋게 보였다고 말씀하시기도 한다. 팔손 생활상을 잘 드시고 나서 다음 날 들어가셨다든지, 잔치 음식을 잘 드시고 나서 가셨다든지, 소위 급체해 들어가셨다는 경우가 이런 사례다.

“할머니, 그 정도 아파가지고는 돌아가시지 않는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아들네들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119에 전화하세요. 심장병 환자는 때가 되면 그냥 숨지기도 합니다.”

심장병 환자는 돌연사라고 해서 갑자기 숨지는 경우가 많다. 통상 증상이 발생하고 24시간 내에 숨지는 것을 돌연사(급사)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증상 발생 후 15분 내에 사망하다보니 손을 제대로 써주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많다. 최근에는 119 등 응급구조체제가 많이 좋아지고 응급의학과가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 이전보다는 많은 환자들이 소생하기도

한다.

그런데 때로는 심폐기능은 돌아왔으나 뇌기능이 손상을 받아 의식을 못 찾거나 사지 마비 등 후유증이 남는 경우도 있다. 더구나 심장병 환자의 절반 정도는 증상이 서서히 심해지다가 사망에 이르지만, 사망하는 사람의 반수 정도는 증상이 호전돼 퇴원할 정도로 회복된 상태에서도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다. 운 좋게 돌연사 상황에서 회복이 된 다음에도 1~2년 안에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복된 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장모님께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아 죄송할 따름이다. 장모님은 크게 아프지는 않았지만 뇌동맥류라고 해서 뇌동맥이 파열되면 부풀어 올라 있는 병을 가지고 있었다. 원인은 대부분이 선천성이기도 하지만 혈압이 높은 사람에게서 생기기도 한다. 언젠가 많이 어지럽다고 해 병원에 오셔서 뇌 컴퓨터촬영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수술하기에는 위험한 부위이기도 하고 연세가 많기도 해 혈압을 잘 조절해가면서 관찰하기로 했다. 그런데 장모님은 몇 년 후에 갑자기 돌아가셨다. 나중에 이웃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성당에 다녀오다

가도 주저앉을 때가 있었다고 한다. 다른 이웃들은 “아들네 집으로 가시지, 사위가 의사라면서 그러고 있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찔했다. 다른 분들은 죽을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구구팔팔이삼사’라고 이삼일은 아파야 아들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아무리 심한 환자라고 해도 죽는 시간을 예측하기는 어렵기만 하다.

무병장수라는 말이 있듯이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좋다. 체중도 조금 덜 나가는 것이 좋다.

실제로 비만역설이라고 해서 심장병 환자나 만성 신부전증 환자의 경우 체중이 조금 더 나가는 사람(과체중 혹은 비만)이 정상 체중이거나 저체중인 사람보다 오래 산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다. 이는 체중이 조금 더 나가는 사람이 사지 마비가 와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빨리 숨지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해주는 말일 뿐이다.

많이 걷는 것이 좋고, 음식은 총량을 줄여야 한다. 가능한 가공하지 않은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밀가루·설탕·소금 등 삼백음식은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고

생명 존중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절실하다



김 용 하  
광주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

살인사건도 문제지만, 최근엔 청와대 문서 누출사건으로 인해 경찰간부가 자살하는 등 생명을 너무나 경시하는 세태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참혹한 사건들을 접하면서, 출지에 상상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의 처참한 입장을 생각해보면 가슴이 저른다. 조금만 노력하여 예방하고 점검했으면 큰 희생을 막을 수 있는 ‘인재’를 겪으면서 회한의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우리사회가 수많은 갈등 요인을 안고 있고 부의 양극화 등으로 어려움이 많다고는 하지만, 일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근접하고 사회 경제적 여건이 향상되어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극단적인 행동이 증가하는 까닭은 과연 무엇인가? 더욱 놀라운 것은 복지가 잘 이루어지는 경제적 풍요국이 자살률이 더 높고, 행복지수가 낮은 반면에 국민소득이 낮은 후진국 국민이 오히려 행복지수가 더 높다는 것이다.

이런 시대에서 민주공통체적 시민으로서 시대적 소명은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사회현상을 분석하여, 근본대책을 세워 사회의 구조개혁과 인간 존중의 가치를 정립해가야 한다. 지적 합리성과 행적 일관성의 바탕위에서, 올바른 가치의 정립을 통해 인간의 품위를 높이고 생명을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외경과 존엄의 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여가야 할 것이다.

모든 국가시책과 교육이 인간 생명존중정신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후약방문적으로 사건이 일어난 뒤에야 부라부라 원인을 찾고 처벌하는 범집행에 앞서 국민들의 인간생명존중중에 바탕을 둔 안전의식의 제고와 서로 배려하는 상생의 정신을 제고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국의 검찰청에서는 법사관위원회를 설치하여 청소년 선도와 범죄예방을 인간적인 접촉과

선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광주지방검찰청에도 검찰시민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 되고 있다. 검찰은 국가존립의 기초인 법을 수호하고, 사회의 공공 질서유지를 위해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최고의 국가기관이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을 법의 잣대로만 냉혹하게 재단하는 것보다는, 평범하고 다양한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양심과 관습과 인간적인 정서에 바탕을 둔 조연을 참고하여 그간의 높은 벽을 다스리나마 완화시키고,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상생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검찰당국의 노력도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비록 죄를 지었다 해도 민주주의의 기본인 인간존중과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가치를 존중한다면, 처벌보다는 계도와 예방 등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되기를 기원하며, 모든 시민이 한마음이 되어 인간생명 존중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가야 할 것이다.

社說

시·도의회, 발전연구원 통합 절차 서둘러라

민선 6기 광주시와 전남도가 상생발전을 위해 처음으로 추진한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 통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호남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할 협력사업이 겹치고 있다. 첫 단추인 연구원 통합 과제가 지지체와 의회 간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면서 광주·전남·전북이 공히 상생을 꾀한다는 청사진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25일 나주에서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과 명현관 전남도의회 의장을 만나 연구원 통합에 대한 협조와 함께 상생발전예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시·도의회는 올해 첫 임시회에 시·도가 제출한 연구원 통합 조례를 상정하지 않은데다 분리 수순을 밟고 있는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조례를 처리하겠다고며 절차를 밟고 있다. 시·도의회의는 지역간 상생발전에는 동의하면서도 연구원 통합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통합 후 미래 비전에 대한 공감대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통합 논의가 장기화해서는 안 된다. 전체 상생 과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남발전연구원은 통합작업에 대비해 지난달 24일까지인 원장의 임기를 ‘통합 때까지’로 연장했으며, 광주발전연구원은 지난해 6월 이후 현재까지 후임 원장을 선임하지 않고 있어 조직 운용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별도의 기관 운영으로 많은 인력과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통합은 불가피하다. 특히 호남고속철도 개통,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2015 광주세계U대회 개최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연구원 통합문제가 상생발전예에 걸림돌이 되서는 안 된다.

시·도의회의는 이제 조례 개정 등 연구원 통합 절차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이를 기점으로 호남이 상생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일빌딩 ‘언론 1번지’ 역사적 가치 살려야

윤장현 광주시장이 24일 광주 전일빌딩을 문화복합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만시지탄이지만 리모델링 추진 중단 후 2년 만에 다시 사업을 재개한다니 반가운 일이다. 다만 전일빌딩의 상징성이나 역사적 가치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전일빌딩은 광주의 한 중심인 ‘금남로 1가 1번지’이자 ‘호남언론의 1번지’이다. 지난 1928년 처음으로 신문사가 들어선 이후 무려 76년 동안 여러 신문·방송사가 자리 잡으며 호남인과 애환을 함께한 역사적 건물이다. 그래서 지역민에게 ‘신문사가 있던 곳’으로 기억되고 있다.

당초 광주시가 2013년 건물을 헐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려하자 역사적 상징 공간을 없애서는 안 된다며 보존 주장이 터져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그해 11월 광주시는 그 가치를 살려 종합미디어센터 등 3개 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전일빌딩은 5·18광주민주화쟁과 6

월항쟁 등 광주 현대사 현장의 한가운데 있었다. 독재에 항거한, 송고한 광주정신이 배어 있는 곳이다. 이런 맥락에서 윤 시장이 광주정신을 확장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았다고 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역사적 사건 이전 언론과 더 깊은 태생적 연인을 엮음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해야 한다. 독일 등 선진국은 대부분 언론 관련 박물관을 두고 있고 미국 워싱턴의 뉴지엄(newseum·뉴스와 박물관 합성어)은 세계 최대를 자랑하며 다 알한 대시인·청소년 교육·전시시설로 각광받고 있다. 전일빌딩에 신문박물관, 교육·문화산업 등 종합미디어 시설이 들어 서면 최고급 문화인프라가 될 것이다.

전일빌딩은 광주시민의 소중한 가치이자 역사다. 결코 지워서는 안 된다. 광주의 자부심을 높이는 언론과 민주항쟁의 고향적 자산으로 부활시켜야 할 책무가 윤 시장은 물론 광주시민에게 있는 것이다.

**無 等 鼓**

“임산부는 나라에서 극진히 돌봐주되 아들을 낳으면 개 한 마리와 술을 주고, 딸을 낳으면 돼지 한 마리와 술을 줘라. 쌍둥이를 낳으면 한 명은 나라에서 양육비를 대주고, 세 쌍둥이를 낳으면 둘의 양육비를 나라에서 부담하라.”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박스 칠 획기적인 인구증산책이 아닐 수 없다. 국가가 육아에 적극 개입한다는 점에서 복지 정책의 완결판이라고도 하겠다. 이 제도는 오월동주(吳越同舟)나 와신상담(假薪嘗膽) 등의 고

국에서 혼례 비용을 보조한 적이 있다. 조선시대 이야기다. 또 집안이 궁핍해서 시댁을 돌보는 시집보내지 않으면 그 집 가장을 중죄로 다스린 적도 있다.

정조는 혼기를 넘긴 미혼자를 조사해 2년마다 한번씩 짝을 지워 결혼시켰고, 성종 때에도 전국의 스물 다섯살이 넘는 미혼자를 통해 인구를 크게 늘려냈다. 결국 구전은 오나라를 이겨 부처를 처형함으로써 복수에 성공한다. 인구가 국력의 기초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당시 월나라가 시행한 정책에는 “젊은 남자는 늙은 여자와 혼인하지 마라. 여자는 열일곱 살, 남자는 스무 살

이 돼도 혼인하지 않으면 부모를 처벌하라”는 대목도 있다. 현 세태와 맞지는 않지만 임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젊은 사람끼리 짝지우려는 계산은 타당해 보인다. 요즘 일각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거론되다가 여론의 못매를 맞은, 적정 나이를 넘겨도 결혼하지 않으면 세금(징벌)을 매기지는 ‘만혼세’(미혼세)와도 상통해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양반의 딸로서 서른살이 넘도록 시집보내지 않으면 그 집 가장을 중죄로 다스린 적도 있다.

정조는 혼기를 넘긴 미혼자를 조사해 2년마다 한번씩 짝을 지워 결혼시켰고, 성종 때에도 전국의 스물 다섯살이 넘는 미혼자를 통해 인구를 크게 늘려냈다. 결국 구전은 오나라를 이겨 부처를 처형함으로써 복수에 성공한다. 인구가 국력의 기초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당시 월나라가 시행한 정책에는 “젊은 남자는 늙은 여자와 혼인하지 마라. 여자는 열일곱 살, 남자는 스무 살

**출산 장려**

<b>光 州 日 報</b>		<b>The Kwangju Ilbo</b>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申港樂</b> 편집국장 <b>程厚植</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b>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b>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63 (대표 FAX 222-4267)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96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다 지 안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프로젝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b>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b>			